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이끄는 힘의 원천

전라북도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인구 50만명의 국제관광기업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은 군산은 요즘 하루하루가 바뀐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에서부터 관광,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 발전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는 숨은 일꾼들이 있는 곳,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가 보았다.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





변화의 중심에 서다. 군산

나당연합국에 항전하다 장렬히 전사한 백제 오성인의 호국충정 얼이 서린 곳, 고려시대 최무선 장군이 지휘한 진포대첩의 현장이기도 한 군산. 황해를 끼고 선유도, 비안도, 개야도, 어청도 등 유인도 16개와 무인도 47개를 품은

도시 군산에 지금 변화와 발전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

군산의 변화는 최근 군장산업단지에서 열렸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기공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주 협약체결에 이어 군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갔고, 3천억원을 투자한 현대중공업이 약 207만 m² 규모의 터를 매입해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장 설립에 들어간 것이다.

간척지를 매립해 조성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예산. 올해 민선 4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한 군산시의 문동신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개발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과 'Dream Hub GunSan'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군산시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견인차가 되고자 시정 목표를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 건설'로 세우고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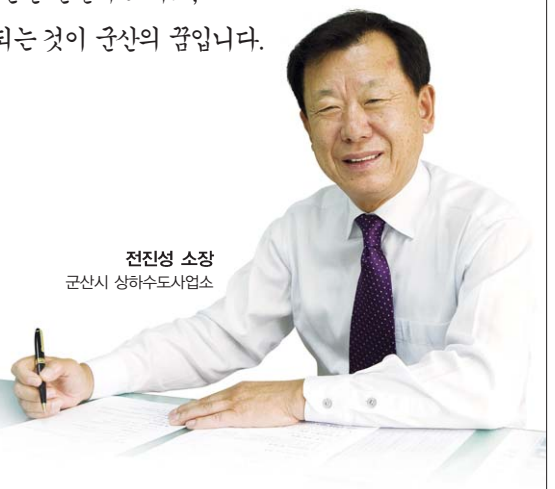
“기업이 유치되고 이전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바빠집니다. 상수도 보급과 오·폐수 분리 등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죠.”

또한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새만금사업 시작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새만금 유역에 518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5곳을 건설하는 등 수질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전진성 소장의 말이다.

“언젠가 이곳에 군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기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해안을 낀 항구도시라는 지역특성상 상수관로가 연약지반에 매설되어 있

많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드리고,
나아가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견인차가 되는 것이 군산의 꿈입니다.
변화하는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성 소장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 70%의
목표를 향해**

어 중·대형 차량이 통행하면서 가해지는 충격으로 관이 균열돼 누수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시가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철저한 계획 속에 관로가 매설되어 문제가 없지만, 과거 일제 강점기 때 매설된 구시가지의 관로는 많이 노후했고 정확한 관내 망이 파악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이 전북에서 가장 누수가 심한 지역이었던 오명을 씻기 위해 전진성 소장은 올해 ‘홀린 물 잡기 3대운동’을 실시했다. ‘홀린 물 잡기 3대운동’은 첫째, 신속한 누수 원인 분석을 위해 블록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관내 배수지 배수 구역별로 구축한 블록시스템을 통해 용수 공급량과 요금 부과량 간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구역유량계 원격감시체계를 동시에 구축, 누수 발생 시 신속히 발견해 대처하도록 하였다. 둘째로는 야간 누수 탐사를 운영한 것이다. 낮에는 소음 때문에 정확한 누수 탐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 주민

들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정확한 탐사를 실시한다. 야간 탐사야말로 유수율을 잡기 위한 군산시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셋째는 노후관 교체와 급수관 분기 방법에 대한 기술 개발이다.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월 18일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과 급수공사 대행업체 대표 및 관계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현규 수도과장의 주재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누수 발생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물의 흐름이 급변하는 곳에 사용된 직각형 엘보 및 이음부의 이탈과 파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관로 접합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홀린 물 잡기 3대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과제를 수행하여 2010년까지 반드시 유수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야망을 이야기한다. 이는 향후 독립채산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9월부터 수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요금 납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금납부를 위한 가상

계좌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텔레뱅킹 등으로 시에서 각 수용가에 개설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 편의를 생각하는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처리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에는 민원을 보기 위해 시청 내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면으로 신청해야만 했으나, 지금은 방문 시 구두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전화를 걸어 논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쁜 농번기나 먼 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김혜자 수도행정과장의 설명이다.


군산시민을 위해 진화하는 수도행정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을 얼마나 빨리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냐, 또한 사용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해결해 줄 것이냐에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소에서는 하수도 준설원 10명이 상시 대기하는 운영체제를 마련하여, 민원 제기 시 30분 이내에 출동해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수질에 관해서는 민원이 거의 제기되지 않을 만큼 군산시의 수돗물은 깨끗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사업소 내에 마련된 수질검사연구소에서는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노후관 문제와 아파트 등 집단시설 내 저장탱크 관리가 또 다른 수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함께 개선해 가는 것이 향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시와 시민이 하나가 된 군산은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을 이루는 신산업도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군산 발전의 첨병으로 산업도시를 선도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어깨 역시 어느 때보다 무겁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변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는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상하수도 납부요금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작으로 군산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자 수도행정과장



유수율 70% 달성은 향후 수도사업소를 넘어 군산시 전체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임을 잊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현규 수도과장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의 면모는 깨끗한 물, 지속적인 하수 관리를 통해 실현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민 위생환경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조성규 하수과장

